

광주미술협회·민족미술인협회·시립미술관 주관 전국 미술인 시국 선언展



인천 민족미술협회원들이 공동 제작한 대형 걸개그림 '레드카드 2014 대한민국'.

“丙申年 꺼져”

최순실 국정농단 풍자·세월호 주제 등
광주·경기·경남 등 84명 27일까지 전시
전국 촛불집회 사진·방문객 투표 공간도

‘丙申年 꺼져’

지난 22일 오전 방문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입구에서는 다소 도발적인 문구를 볼 수 있었다. 노란색 플래카드에 붉은 글씨로 적힌 전시명은 이번 전시가 어떤 성격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광주미술협회,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광주시립미술관이 연말을 맞아 공동 주최·주관한 전국미술인 시국선언 전시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경기·강원·제주·경남·경북 등 전국에서 84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영상, 사진 등 작품 15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 민미협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민중 총궐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미술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전시는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패러디나 풍자 작품을 통해 촛불민심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시명 ‘丙申年 꺼져’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망언을 한 부패권력 부역자들을 향한 외침이며 분노가 가득했던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길이 10.5m·높이 2.5m 크기 대형 걸개 작품이다. 인천 민미협 회원들이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친구를 하늘로 떠나보낸 단원고 학생 위로 박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치했다.



김병택 작 ‘Ace of sorrow’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 현장, 무너져 내린 공교육 등을 대중들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남진 작가가 출품한 ‘장막도’도 가로 5.6m·세로 2m 대형작품이다. 불교 탕화를 연상케 하는 이 작품 속 인물들은 곳을 하거나 명품백을 매고 있고 밥그릇에 절을



우리나라 현실을 묻는 투표지.

하고 있는 등 현재를 비꼬고 있다.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았다. 박철우 작가가 출품한 ‘선무당의 미소’ 속에는 세월호 선체 깊숙한 여동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무당처럼 미소 짓고 있다. 어린이이를 둔 박은경 작가는 세월호 당시 느꼈던 심경을 만화로 표현했다. 한평생

예쁜 그림만 그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과 세월호 참사를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담았다.

성유진 작가가 전시한 ‘브레멘의 악당들(개와 돼지의 세계)’은 변기 안 물 속에 배가 떠다니고 개·돼지 인형을 곳곳에 붙여 놓은 설치작품이다.

입구 맞은편에는 사진 약 100여장이 배치됐다. 전국 미술인들이 찍은 촛불 집회 현장이다. 노란 물결로 덮인 광화문을 비롯해 광주, 인천, 부산 등 각지에서 들리는 국민 목소리를 담은 작품이다. 또 영상으로도 촛불집회 현장을 보여준다. ‘하야가’ 등 음악이 흘러나오며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밖에 박대석 작가가 전봉준을 그린 ‘늑두장군’, 어린이이가 개와 돼지를 생각하는 노경호 작가의 ‘늑만 뿔뿔뿔뿔 뜨고 바라만 보았다’ 등을 통해 다양한 작가 시각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현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투표 공간을 마련했다.

‘근조(謹奏)통일’, ‘근조 민주주의’, ‘근조 기회균등(흙수조·헬조선)’·‘근조 정의’ 등 각자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4개 부문 중 하나에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 22일 오전까지는 기회균등에 불만을 갖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문의 062-236-05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피아니스트 5명도 함께해 깊은 울림이 있는 공연을 만들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일러스트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로 이름을 알린 신주옥 작가는 그림과 공간 디자인,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사회참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와 개막 축하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홍재 광주시향 지휘자 취임 연주회

27일 문예회관에서...교향곡 ‘합창’ 홍주영·김지운 협연



지난 11월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새롭게 이끌게 된 김홍재(사진) 지휘자가 광주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김홍재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일본 도호대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를 사사한 그는 도쿄국제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일본에서 태어나 50년간 무국적자로 살았던 그는 200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2007년부터 울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왔다. 광주 시향과는 지난 2013년과 올해 광주시향 40주년 기념음악회 광주·일본 공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 지휘자가 선택한 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다. 베토벤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합창’은 특히 실려의 시를 바탕으로 한 4악장을 통해 인류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인기가 높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상급 성악가들



홍주영

김지운

이 협연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 브레사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고 베르디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홍주영씨는 지난해 제노바 까를로 펠리체 극장에서 ‘라 보엠’의 미미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으며 올해 광주시오페라단 ‘라 보엠’ 공연에서도 미미 역으로 호평받았다.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테너 김지운씨는 뒤셀도르프 국립 음대를 거쳐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 등에서 객원 가수 등으로 활동했다.

또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동한 후 경희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바리톤 강형규,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씨가 함께한다.

그밖에 광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0~60대 문화향유 기회 확대해야

광주문화재단, 시민 설문...여가활동 타 연령층 대비 낮아

광주지역 50, 60대 중장년층에 대한 여가활동·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문화재단이 전남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세 이상 광주시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현황 및 향유 실태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50, 60대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9.8%, 17.2%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67.5점/전체 평균 74.4점)도 최저여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예술 관람부문에서는 순수 예술 보다는 영화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영화(78.3%), 복합장르(35.0%), 미술(28.3%) ▲연극(21.7%) 순이었다.

광주 문화환경(인프라,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52.3점(100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화예술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계층은 20대 이하 세대로 파악됐다. 20대 여성과 30~40대 미혼녀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해 민간공연장 이용률이 각각 20.2%, 20.0%로 타 계층 보다 높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지역 문화 정책 개발·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리의 촛불을 들며

광주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가 개관 1주년을 맞아 일러스트레이터 신주옥 초대전 ‘우리의 촛불을 들며’를 24일부터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활발한 사회참여로 파악

소촌아트팩토리 개관 1주년
내일부터 신주옥 초대전
개막일 ‘달콤한 피아노’ 공연

한 시대의 요구를 특유의 감각으로 형상화한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 개막 당일에는 축하공연 ‘달콤한 피아노’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피아니스트 송희주와 성악가 조정호가

나서는 ‘달콤한 피아노’는 두 사람의 공연에 신주옥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멋진 라이브 공연을 선사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를 모토로 소촌아트팩토리가 그동안 발굴한 시민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문화지원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래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토비스론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필, 화순, 속초, 제주, 충무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Beautiful Baeg Yang Hotel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